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1

Warm heart & Cool head

ECONOMICS NEWSLETTER 제 25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Department of Econom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발행인 : 홍기현 / 편집인 : 이철희 / 편집조교 : 정진용 / 발행일 : 2011년 9월

Economics Conference in SNU, 2011

▲ 학술대회 참석자 기념촬영 사진

우리 경제학부와 금융경제연구원(SNU Institute for Research In Finance and Economics)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2011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Economics Conference in SNU, 2011'를 개최하였다. 서울대학교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3일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학회는 미국, 일본, 호주, 스페인 등 세계 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Recent Developments in Dynamic Analysis in Economics: 30 Years after Macroeconomics and Reality'라는 주제로 거시경제, 화폐금융, 계량경제학 등의 분야에 중요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었다. 특히 이번에 참석한 석학들 중에서도 거시경제학과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프리스턴大의 크리스토퍼 심즈(Christoper Sims), 뉴욕大의 토마스 싸전트(Thomas Sargent), 시카고大의 라스 한센 교수(Lars Hansen)가 대표연자(keynote speecher)로 참여하여 경제학의 이론 및 실제적 측면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 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Sargent 교수(좌)와 Sims 교수(우)

한편 우리 학부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 김재영, 윤택, 김소영 교수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참석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윤택 교수는 'Durable Goods and Persistent Recession', 김재영 교수는 'Limited Information Analysis in DSGE Models', 김소영 교수는 'Generalized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발표를 하였다.

대표강연자 소개 및 발표 내용

▲ 발표 중인 심즈 교수

심즈 교수는 1995년에 세계계량경제학회 (Econometric Society)의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2010년에 전미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2년에 회장직을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심즈 교수는 계량경제학 및 거시경제학 분야에 수많은 주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1980년 「Econometrica」에 발표된 'Macroeconomics and Reality'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경제학의 여러 분야에서 동학분석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VAR(Vector Autoregression)모형의 분석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심즈 교수는 'Modeling the influence of fiscal policy on inflation'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상호 연계성을 동태적 거시 일반 모형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즉, 현실적으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시경제정책을 분석하는 모형에 그러한 상호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즈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고려하고 평가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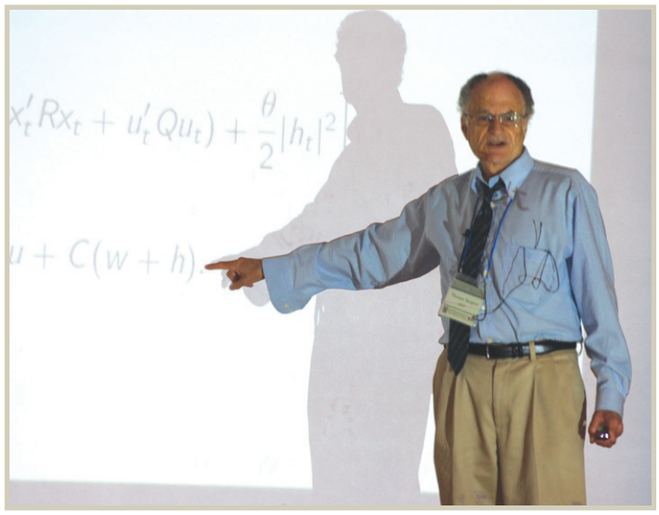
❶ 경제학부 주요소식 ❹ 신임교수 인사말 ❺ 동문기고 ❻ 경제학부 서포터즈 ❼ 재학생기고 ❾ 박사학위자 취업현황 ❿ BK21사업단 소식 ⓫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ASP)안내 ⓬ 경제학부 단신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2

▲ 발표 중인 한센 교수

한센 교수는 다양한 경제학 모형 – 특히 비선형 모형 – 의 실증분석에 적용되는 GMM(Generalized method of monents)의 개발자이다. 한센 교수는 거시 및 금융경제학, 노동경제학, 국제금융 등 여러 분야의 문제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가진 중요한 논문을 저술하였다. 또한, 한센 교수는 금융경제학의 자산가격결정(asset pricing)모형에서 중요한 개념인 한센-자그나단 바운드(Hansen-Jagannathan bound)를 제시하는 등 이론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그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미 Frisch Medal, Foundation Frontiers of Knowledge Award 등 경제학 및 금융 분야의 중요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센 교수는 'Learning inside nonlinear equilibrium model of valu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경제 주체들이 모형의 계수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계수들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였다. 즉, 특정한 변수의 미래 실현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risk)에 더하여 주요 관련 변수들의 기간 간 변화의 운용방식을 결정하는 모형의 계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불확실성(uncertainty)도 함께 고려한 모형을 제시한 것이다. 강연에서는 구체적인 예로서 반잘(Bansal)과 야론(Yaron)의 '장기적 위험 모형(long-run risk model)' 을 설명하였다. 특히, 소비 또는 소득의 기간 간 변화와 관련된 계수들을 추정해야 하는 상황을 설정한 후,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확률적 할인인자에 장기적 변동이 포함될 때 유용한 '승법적 함수체(multiplicative functional)' 의 개념과 'Perron-Frobenius 정리' 를 이용한 자산 가격의 설정방식을 설명하고, 그 결과 도출되는 '불확실성의 시장가격(market price of uncertainty)' 를 소개하였다.



▲ 발표 중인 싸전트 교수

싸전트 교수는 현재 거시경제학의 주 패러다임인 합리적 기대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으로서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경제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싸전트 교수는 'Stackelberg dynamics with robust player'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모형에는 자신의 산출량이 시장수요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산출량을 결정하는 독점적 기업과 시장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하여 생산량을 결정해야 하는 경쟁적 기업이 존재한다. 산업내의 모든 기업들은 공통된 한 종류의 모형 – 수요충격의 기간별 변화에 대한 모형 – 을 설정하고 있지만, 개별 기업 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형에 오류(왜곡된 인식)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특히, 개별 기업은 가장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왜곡에 의한 이윤의 과대산정 정도를 최소화하는 왜곡의 정도를 결정하여 그 결과로 선택된 수요충격의 모형에 의해 자신의 산출량을 결정한다. 이런 상황하에서 싸전트 교수는 슈타켈버그 모형의 균형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설명하였다. 한 참석자는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이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다를 가능성을 고려한 후에 최적 정책을 선택하는 정부의 역할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분석의 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워크샵(SNUAC Workshop)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중점연구소 산하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통합 연구단은 2011년 6월 8일 서울대학교 롯데국제교육관(152-1동) 소회의실(207호)에서 아시아경제협력이라는 이슈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경제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히 아시아 금융 통화 협력에 대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한국이 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어떤 위상을 가질 수 있는지와 어떤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였다. 참석자에 의하면 아시아 경제협력이라는 주제가 매우 크고 복합적인 주제이지만, 이번 워크샵에서 발표자들이 각자 아시아경제협력이라는 이슈를 분석하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여 주제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몇몇 발표자의 발표 내용은 그 분량이 방대하여 주어진 시간에 충분한 발표와 질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 워크샵에서는 우리 학부 김봉근 교수, 김소영 교수가 발표자로 참석하여 각각 'The Effect of Neighborhood Diversity on Volunteering: Evidence from New Zealand', 'Financial and Monetary Cooperation in Asia: Challeng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였다.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3

교수수상 및 동정

조성진 교수 제41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조성진 교수가 2011년 3월 27일 '제41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1971년 처음 제정되어 올해 41회째 수상자를 배출한 매경이코노스트상은 국내 최고 경제 · 경영학 분야 학술상으로서 단순히 학문적인 업적뿐 아니라 현실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 학자들에게 수여되고 있다. 조성진 교수는 렌터카 회사의 가격정책을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균일 렌터카 가격에 대한 퍼즐(The Flat Rental Puzzle)'을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게재하였다. 렌터카 회사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수요함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기업의 가격결정을 돕는데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진 교수는 이 외에도 '실증적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형, 이석배, 이지홍 교수 경제학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박지형 교수

이석배 교수

이지홍 교수

경제학부 박지형, 이석배, 이지홍 교수(사진 좌측부터)가 경제학 분야 탑5 학술지들에 논문 게재를 했거나 확정(forthcoming)짓는 쾌거를 이루었다. 박지형 교수의 'Enforcing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with Imperfect Private Monitoring'은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이미 올해 7월에 게재되었고, 이석배 교수의 'Trends in Quality-Adjusted Skill Premia in the United States, 1960-2000(Pedro Carneiro와 공저)'는 『American Economic Review』에, 이지홍 교수의 'Efficient Repeated Implementation(Hamid Sabourian와 공저)'은 『Econometrica』에 각각 게재될 예정이다. 탑5 학술지들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기존 연구들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논리적 엄밀성 및 연구결과의 풍부한 함의 모두 뒷받침된 논문들만을 게재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세 편의 논문이 조금의 차이를 두고 저명 학술지에 게재 확정되어 경제학부 교수진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소영 교수 제4회 NEAR학술상 수상

우리학부 김소영 교수가 5월 26일 '제4회 NEAR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NEAR재단은 한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 대 동북아시아 전략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연구기관으로서, 매년 동북아시아관련 우수 논문을 저술한 학자들에게 NEAR학술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소영 교수는 『The World Economy』에 게재한 'Emerging Asia: Decoupling or Recoupling'이란 논문으로 이 상을 수상하였다. 김소영 교수는 2009년 가을학기에 경제학부에 부임하여 학부와 대학원에서 거시경제, 국제금융 관련과목을 강의하며 연구 및 학생지도를 하고 있다.

김대일, 김영식 교수 경제학부 신임 부학부장

김대일 교수

김영식 교수

2009년 8월부터 2011년 7월까지 2년간 각각 경제학부 교무부학부장,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던 황윤재 교수, 이상승 교수에 이어, 2011년 8월부터 김대일 교수(사진 왼쪽), 김영식 교수(사진 오른쪽)가 각각 경제학부 교무, 학생 부학부장을 맡게 되었다. 김대일 교수는 1992년 미국 시카고大(University of Chicago)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998년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고, 김영식 교수는 1994년 미국 아이오와大(University of Iowa)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004년 경제학부 교수로 부임하였다.

이창용 前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 선임

이창용 경제학부 前교수가 3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에 선임되었다. 한국인으로서는 두 번째로 ADB 수석이코노미스트에 선임된 이창용 前교수는 1989년 미국 하바드大(Harvard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1994년 경제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어 2009년까지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2008년 3월 출범한 금융위원회 초대 부위원장을 거쳐 G20 정상회의 준비위 기획조정단장을 역임했다.

교수신간

재정학 | 이준구 다산출판사 (2011. 2)

이 책은 독자들이 현대의 혼합경제체제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적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얻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개정판에서는 재정관련 제도와 통계를 최신 수준으로 보완하였고,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취지에서 환경정책을 논의하는 독립된 장을 새로 추가하였다.

경제학원론 9판 | 조순, 정운찬, 전성인, 김영식 율곡출판사 (2011. 3)

40 여 년 동안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최근 동향을 소개해 온 최초의 원론서. 제 9판에서는 현재 및 과거의 국내외 사례와 통계자료의 확충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문제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현안에 이르기까지 실제와 이론의 밀접한 연관성을 예시하였다. 그리고 경제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개념과 이론을 경제학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 그래프와 차트, 표, 사진, 삽화 등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또한 간단한 수리적 분석도 직관적 설명과 함께 소개하였다.

국제금융론 2판 | 김인준, 이영섭 율곡출판사 (2011. 2)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여러 변화가 국내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항상 개별 기업 차원 및 국가경제 차원에서 동시에 다루고 있다. 다른 하나는 이론과 현실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자체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제도, 정책 등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고 현실에서의 변화에 대해 국제금융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4

신임 윤 택 교수 인사말

윤 택 교수

신임교수의 인사말을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신케인지안 거시경제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최적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당시의 생각으로는 통화정책에 관해서 학술연구로서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 보았는데 통화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곳에서 통화정책을 연구하는 기회를 얻게 되어 내심 큰 기대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6 년간 중앙은행에서 일하는 가운데 학문적인 연구에 더 집중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의 신임교수로 부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중앙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금융위기의 전개과정과 관련된 정책대응의 진행과정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에서의 경험을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좋은 논문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오랫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하여 첫 학기였던 지난 봄 학기에는 강의를 잘 할 수 있을 것 인가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거시경제학과 화폐금융의 교과목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많아서 큰 힘이 되었고, 덕분에 첫 학기를 무사히 지내게 되어서 수강학생들에게 감사함을 보냅니다.

서울대 경제학부로 부임하면서 시작했던 연구중의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국가 부채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의 문제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국가 부채의 조정을 통해서 물가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로가 존재한다는 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경제학자들이 강조해왔습니다. 아울러 재정수지가 불안할 때 통화정책이 순조롭게 거시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최근에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거시경제이론에 반영하기 위하여 통화정책의 역할이 주로 강조되어온 신케인지안 모형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동시에 강조되는 신케인지안 모형으로 확장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5월에 서울대경제학부의 주관으로 열린 국제 학술대회에서의 일환이었던 Sims 교수님의 주제강연에서도 민간 경제주체들의 예상인플레이션에 대한 국가 부채의 효과를 고려한 거시경제모형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조정 되면서 국채의 부도위기를 고려한 경우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역할이 동시에 강조되는 신케인지안 모형으로 확장하기 위한 하나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국에서도 사회 안전망과 인구고령화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신케인지안 모형의 개선은 한국의 경제문제를 분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초에 미국 경제학회 학술지에 Garcia-Cicco, Pancrazi, Uribe가 공저한 신흥국의 실물적 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s in Emerging Countries)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신흥국 경기변동에 관한 논문이고 특히 아르헨티나의 지난 100여년 간의 거시경제자료를 기초로 하여 신흥국의 경기변동을 설명하는 데 금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5월에 세계은행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2011-2025년 기간 동안 6개 국가가 세계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성장의 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개 국가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입니다. 과거의 신흥국과 선진국으로 구분하여 신흥국이 선진국을 추격하는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신흥 중심경제 국가가 경제성장에서의 성장의 축으로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앞으로 한국 경제가 세계 은행이 예측 한대로 세계 경제의 성장의 축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급속히 성장한 한국 경제의 100년간의 거시경제자료에서 함의되는 경기변동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마침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일제시대의 거시지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 이후의 거시경제 지표의 자료를 연결하면 한국의 경우도 100년에 걸친 표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숙제가 생기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서울대를 두 차례 방문한 시카고 대학의 한센 교수님의 최근 논문 중에서 "금융제약이 고려된 거시경제모형을 자산가격 설정 모형의 관점에서의 분석함"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수리적 분석으로 이루어진 논문의 슬라이드이지만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금융제도의 변화와 제약이 고려된 거시경제모형을 자산가격 설정 모형의 관점에서의 분석함"이라는 논문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에 부임한 후에 대학원 학생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신임교수의 인사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 대학교 경제학과 학부(학사) 및 대학원(석사) 졸업 (1979.3-1983.2/1983.3-1988.8)
- 시카고 대학교 박사 졸업 (1994.12)
- 한국경제연구원 (1995.8-1996.8)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전임강사/조교수 포함) (1996.8-2010.8)
-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Senior Economist (Economist포함) (2005.5-2011.2)

교수 신규임용

경제학부는 2011년 9월 Oyvind Thomassen 교수를 조교수로 신규임용한다. Oyvind Thomassen 교수는 2010년 옥스포드大(University of Oxford)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벨기에 루벤카톨릭大(Katholieke Universiteit Leuven)에서 박사 후 연구자를 지내다 경제학부로 부임하게 되었다. 주요 연구분야는 산업조직론으로 2011년 가을학기에는 '고급산업조직론'과 '대학원 논문연구'를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5

Stay hungry. Stay foolish.

강영재

"학부과정을 마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경제학자로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또는 공무원이 되기 위한 시험에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업에 입사하여 회사를 이끄는 임원이 되는 포부를 가질 수 있고, 언젠가는 직접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을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선배로는 다소 특이하게, 이런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 "내가 해 봐서 아는데 ..." 라고 말 할 수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기에, 저의 개인적 경험을 먼저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민주화 항쟁이 최고조로 치닫던 1980년대 중반, 많은 학우들이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민주화 시위에 나설 때 저는 코와 입을 막고 최루탄 연기를 헤쳐 지나 도서관에서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고민했었습니다. 학부 졸업 후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과정을 밟으면서, 새로운 지적 경험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것은 일견 단순하게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차원에서의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고, 이러한 사고의 폭과 깊이는 인문학적 소양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대학원 동료들과의 토론과 대학교 캠퍼스 곳곳에서 열리는 세미나 및 강연을 통해, 인문학적 감수성 없이는 다양한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97년 겨울, 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의 소용돌이를 맞이하게 됩니다. '도적적 해이(Moral hazard)' 라는 생소한 경제학 용어가 일반 국민의 일상언어 속에 자리잡게 되는 것도 바로 그즈음입니다. 경제 제도 및 정책이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왜곡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경제학자로서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제주체의 인센티브를 바꿈으로써 그들의 행위와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제학적 실험' 에 참여할 수 있는 '행운' 을 갖기도 했습니다. 1999년부터는 맥킨지 및 동료들과 같이 창업한 엔플랫폼에서 10년 동안 경영컨설턴트로서, 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 수립과 조직 변화를 실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명백한 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변화 특히 성공한 조직의 자발적인 변화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타성을 극복하고 필요한 조직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성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지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국내 주류회사의 임원으로 주류산업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과거 주류산업은 정부 규제라는 진입장벽과 복점 또는 과점 경쟁체제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따라 진입장벽이 허물어지고, 해외 수입주류제품의 성장과 국내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전략 변화와 함께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매일 '무한경쟁' 과 '혁신' 이라는 화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知天命의 나이도 안된 제가 여러분에게 오랜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충고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커리어를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이자리를 빌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후배들에게 두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어떤 진로를 택하든 꼭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부모님께서 좋다고 하시니까, 언론에서 대세라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 성과도 더 좋을 뿐더러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음은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기회는 꼭 오게 마련입니다. 학부에서의 전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두번째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리더(leader)로서 자기 계발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한 조직의 리더가 가진 안목과 판단력에 따라 조직의 성과와 운명이 좌우되고, 또 리더처럼 생각하고 헌신하는 조직구성원이 많을수록 더 뛰어난 조직 성과를 거두는 사례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지휘관에 따라 군생활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잘 알 겁니다.) 타고난 리더도 있지만, 저는 많은 리더들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경제학적 논리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여러분들이 각자 원하는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뿌듯한 마음으로 그려보면서, 제가 평소에 보약처럼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경구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조직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One of the greatest pieces of economic wisdom is to know what you do not know." (Galbraith): 겸허한 자세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고, 문제해결의 출발점입니다.

"You can tell whether a man is cleaver by his answers. You can tell whether a man is wise by his questions." (Naguib Mahfouz): 리더는 통찰력을 가지고 조직이 나아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제 제기가 적절하지 못하면, 조직 전체가 쓸데 없는 '정답' 을 찾는데 노력을 낭비하게 됩니다.

"It's not the hours you put in your work that counts, it's the work you put in the hours." (Sam Ewing): 리더는 열심히 노력한다는 착각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반문해야 합니다.

"Don't waste yourself in rejection, nor bark at the bad, but chant the beauty of the good." (Emerson): 리더의 긍정적인 태도는 바이러스처럼 조직에 전파됩니다. 시련과 난관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력과 적극적인 옵티미즘이야말로 조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Luck is what happens when preparation meets opportunity." (Seneca): 준비된 사람에게 행운이 온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뛰어넘는 진리입니다. 선견지명으로 미리 대비하는 조직이 살아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브 잡스의 연설로 유명해진 "Stay hungry. Stay foolish." 입니다. 요즘 기업 현장에서 '현상유지' 는 '퇴보' 를 의미합니다. 이제 경제학원론에 나오는 슘페터의 '혁신' 과 '창조적 파괴' 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한 관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끊임 없이 실험하고 위험을 감수한 모험을 하는 기업만이 살아 남을 수 있고, 이러한 실험 정신과 도전하는 문화를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고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라 하겠습니다.

Are you still hungry and foolish enough for new ideas and adventures?

〈학력 및 주요경력〉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 Stockholm School of Economics 객원조교수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McKinsey & Co. Associate
- 엔플랫폼 부사장 · 현) 하이트진로 부사장

※ 인적사항이 변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팩스, 이메일, 우편 등 어떤 형태로든 소식을 보내주시면 다음호 소식란에 게재 하겠습니다.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학부 홈페이지가 2011년 9월 14일자로 개편되어 졸업생을 위한 학번별 게시판을 새롭게 만들었으니 동문들께서는 아낌없는 이용 바랍니다.
● E-mail : snu97113@snu.ac.kr ● 전화 : 02-880-6359, 6398 ●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6

경제학부 서포터즈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경제학부의 규모로 인해 파편화 돼 있는 학부생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고 사제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올해 2011년 2월에 기획된 단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학기에 사회에 진출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경제학부의 진로에 관한 강연회를 홍보 및 진행한 바 있으며 5월 달에는 스승의 주간을 맞이하여 'Meet your professors' 라는 사제 교류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두 행사 모두 100여명이 넘는 학우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동시에 학부 내 교류 프로그램에 관한 학우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제학부 서포터즈는 현재 이준구 교수님을 지도교수님으로 모시고 20여명의 학부생과 함께 차후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 선배와의 대화: 경제학부생의 진로는?"

행사는 학부생들의 진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교수님들과 동문 선배님들의 후원 속에 3월 25일 오후 4-7시에 83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수 동문(96학번) 선배님의 홈페이지 글이 시초가 되어 남우도(95학번), 곽상현(96학번), 심승규(96학번), 김동우(03학번), 정상안(03학번) 총 6명의 동문 선배님들의 진로에 대한 강연이 이루어졌습니다. 학부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경제학부장 홍기현 교수님과 학생부학장 이상승 교수님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진로 간담회는 매해 3월 진행될 예정입니다.

스승의 날 행사는 현재 경제학부 학부 차원에서 사제간의 자연스러운 만남 및 지속적인 교류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Meet your professors' 라는 이름 하에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서포터즈는 지도교수 배정 명단을 바탕으로 5월 11일-18일 간 신청자를 받아 개별 교수님과 지도학생들의 식사자리를 주선하였습니다. 총 27분의 교수님께서 참가하셨으며, (중복 포함) 총 110여 명의 학우들이 참여하였습니다. 학우들은 진로 및 학업 그리고 연애에 이르기까지 많은 화제로 지도교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 교수님들 및 학우들에게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며 앞으로 스승의 날 행사는 매년 5/15일이 낀 일주일 간 올해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혜훈 동문 인터뷰(경제학부 82학번, 現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혜훈 국회의원

Q. 경제학부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A. 당시는 학교장의 직인이 있어야 대입 지원을 할 수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법대에 지원하길 바랐고 집에서는 여자는 법대는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타협한 학과가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경제학부는 수학이 많이 필요한 과였죠. 제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건 재수를 하게 되면 싫어하는 수학을 또 할까봐 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재수나 전과를 하고 싶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었네요. 게다가 마침 제 지도교수님이 계량경제학을 공부하시는 정기준 교수님이셨어요. 정기준 선생님의 권유로 조교를 하게 됐고, 결국 박사도 수학을 많이 쓰는 계량경제학으로 하게 됐습니다.(웃음) 뭐든지 열심히 하면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Q. 국회의원은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는지요?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서 경제학 전공은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A. 국회의원이 되면 법이나 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KDI 근무 시절, 2038년이 되면 국민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연구원으로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개선하려 해도 공무원들에게는 권한이 없었고, 국회의원은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과 문제의식으로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한 것은 의정 활동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국회는 사회 변화 이전에 사회를 선도해서 이끌어나가는 곳입니다. 그 의정활동의 기초는 정책이 다양한 이익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일에 있습니다. 경제학은 사회 현상을 판단하고, 이익을 섹터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거시/미시적 틀을 제공해주며, 비용(cost)개념을 통해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사람의 경제학도로서, 더 많은 경제학 전공자들이 국회에 들어왔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Q. 여성으로서 경제학 박사를 하시면서 아드님 3명까지 키우셨던데 힘들지 않으셨나요? 경제학부 여학생 후배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입니다. 남편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둘째를 낳았을 땐 누워서 논문 작업을 마쳤지요. 여성 후배님들께 권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가정을 갖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고생 사이사이에 기쁜 일도 많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루고 싶은 커리어가 있을수록 차라리 결혼을 빨리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마쳐야 합니다. 커리어를 시작하면 초반에는 능력이 갈리는 게 없지만 날이 갈수록 고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일찍 결혼을 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Q. 자신의 인생의 멘토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A. 한승수 선생님이십니다. 학부 3학년 재정정책 수업 때 한승수 교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께서 학과 사무실을 통해 연락하셔서 밥을 사주시면서 여자라고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하라고, 그 분야에 희소가치가 있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이 계기가 되어 최종적으로 유학을 가는 것과 KDI에서 근무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승수 선생님께서는 그 외에도 저의 유학, 유학 이후의 커리어에도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한승수 교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많이 챙겨주시고, 제자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수님과의 그 때의 짧은 만남이 저를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현재 학부생들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공부와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외에도 재정학, 산업경제학, 법과 경제 등의 경제를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강의들도 수강해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세요. 그것이 유망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관심을 가지면 재미가 있고, 잘 할 수 있고 결국엔 일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을 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제가 한승수 선생님과의 만남이 단초가 되어 제 진로에 대한 결심을 했듯이 누구에게나 인생을 바꿀 계기가 있습니다.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7

공부해서 남 주자 – 아프리카의 따뜻한 심장 말라위

정다운

'공부해서 남 주자'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럽고 건방져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하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했던가. 사실 이 거창한 구호 뒤에는 잘 준비된 그 무언가가 없다. 단지 열정만 가득한 일개 햇병아리 경제학도(?)의 뻔뻔한 자신감만 존재할 뿐이다. 그 뻔뻔한 자신감은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의 빈곤과 가난을 없애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대한 청사진 설계의 밑바탕이 되었다. 앞으로의 내용은 이 청사진에 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될 것이다.

나는 경제학이 나의 청사진 설계에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을 거치면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제학이 지금까지 얼만큼 나의 청사진 설계에 도움을 주었는 지는 불확실하다. 미시, 거시, 계량 경제학으로 분류되는 경제학은 수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론 중심적인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또 잘 하지 못하니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건강과 여러 사회적 outcome 들을 분석하는 논문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경제학의 유용성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일례로 우리 학교 이철희 교수님이 한국 전쟁 기간 (1950년 ~ 1953년) 당시 태아/영아들의 장기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태아/영아기의 전쟁 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경우의 사회적 결과 (socioeconomic status) 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는데 이 논문만 보더라도 경제학이 얼마나 유용한 분석 도구인 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년 여름에, 유학간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아프리카의 보건과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경제학과 대학원 학생들/보건대학원 학생들이 모여서 약 두 달간 세미나를 했다. 주제는 주로 보건 관련 이슈였지만, 교육과 아프리카 개발이라는 주제도 다루었다. 사실 세부 주제만 보면 저것이 어떻게 경제학이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렇다. 적어도 그 내용에 관해서는 경제학으로 분류하기 힘들다. 보건학과 개발학이 더 맞는 표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서 경제학의 힘이 나타나는 것 같다. 보건분야, 개발분야, 교육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경제학적 프리즘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여 객관적이며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건실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나아가 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실증 데이터와 계량경제학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명쾌하게 제시하고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정확한 연구 없이는 어떠한 정책의 효과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정책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가늠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경제학은 현실의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치유의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경제학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유의미한 실증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진행되는 보건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라위에서 HIV/AIDS 예방사업과 모자보건사업 (Mother and Child Health Project) 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경제학과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가장 중요한 사업 효과의 평가와 분석 작업에 계량 경제학적 방법이 쓰이기 때문이다. 우선 HIV/AIDS 예방 사업은 약 10,00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HIV/AIDS 검사 및 성교육, 그리고 남학생들에게는 포경수술을 제공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HIV/AIDS 예방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평가하고자 한다. 이 때 Ordered RC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의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을 극대화하려 한다. 모자보건 사업은 약 5,000 여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영양소 공급, 각종 산전관리, 말라리아 약품 및 모기장 지급을 포함한 건강 패키지 공급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아이의 건강과 임신부의 건강, 먼 훗날 이 아이의 사회적 결과 (socioeconomic status)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려 한다. 이 사업 역시 계량 경제학적 방법으로 분석하는데, 이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무작위 sampling을 하는 RCT 방법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한다. 특히 모자 보건 사업의 경우 태아기 환경의 중요성과 영아기 환경의 중요성을 비교함으로써 저개발 국가의 임신부들에게 어느 시기가 아기와 산모에게 더 중요한가를 알린다. 이를 통해 프로그램이 가장 효율적으로 실행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을 지면 관계상 전달할 수 없지만, RCT 라는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 및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더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창출하려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미있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아프리카 지역에 정착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의 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길 희망한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실 및 도서관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것들을 많이 얻었다. 실증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의 입장에서 대규모 단위의 RCT 를 체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데이터 작업의 어려움, 소중함 등을 깨달을 수 있었다. 기관의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은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데이터의 하나하나가 쉽게 얻어진 적이 없었다. 정부의 협조와 현지 주민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단 한 명의 데이터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얻어낸 데이터는 더 의미 있는 연구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정말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해 내리라는 뻔뻔한 바람으로 또 다시 이어졌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연구에 열정을 쏟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도 말라위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프로젝트 중간에 귀국하였지만 나 역시 다시 내년에 말라위로 돌아가 열정을 쏟을 예정이다. 단순히 연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닌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고 특히 아프리카를 아끼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연구 결과들이 이 세상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이런 바람이 나의 청사진을 조금씩 완성시켜나가는 데 이바지 할 것이다. 더불어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갖고 경제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려 하는 경제학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라는 소망을 끝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8

333일간의 좌충우돌 세계일주이야기

최가영

단순히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작한 "독도레이서"로서의 333일간의 여정을 통해 저는 삶의 온갖 희노애락을 맛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일상을 살다보면 절대 품을 수 없었던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언제나 저의 여정 앞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활동은 학교 밖 생활을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저에겐 너무나 벅찬 여행이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 이 여행에서 물었던 질문들의 해답을 하나 둘씩 찾아갈 때면 비로소 이 벅찬 청춘의 경험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로 남기고 온 저의 웃음 눈물 고민들이 담겨 있는 이야기를 이번 기회에 학우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3학년 1학기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아닌 염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순간 저는 Global Trailblazer(도전동아리)라는 동아리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전공과 단대가 다른 각양각색의 6명의 친구들을 만나 준비기간 8개월, 여행기간 11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독도레이서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 골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젊은이다운 방식으로 한국과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를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문은 행사준비였습니다. 직접 외국의 대학교 한인학생회와, 한인단체에 연락하여 장소협조 및 현지도움을 여쭙고,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행사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물놀이와 태권도, 판소리를 배웠으며 외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독도에 대한 얘기를 외국인들에게 어떻게 풀어낼까를 고민하였고 따라서 각자의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한국과 독도를 알리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뵙고 저희의 세미나 내용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님, 국제 법을 전공하신 이상면 교수님을 통해 독도에 관한 역사적, 법률적 도움을 받았으며, 반크 박기태 단장님과 서경덕 교수님, 그 외 각 종 NGO단체들을 찾아뵙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어떻게 외국인에게 홍보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또한 언제나 여행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였던 자금 문제도 아르바이트로 매달 모은 돈과 출발 직전 여행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몇몇 기업의 도움 덕분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어쨌든 출발하고 본다는 정신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2009년 8월 14일부터 약 1년여 동안 미국, 중남미, 호주, 유럽, 아프리카대륙을 돌며 우리의 이야기를 전했으며, 저희의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신발과 양말을 벗고 찍어주신 발 도장 2000여개를 모았습니다. 저희의 활동은 세미나, 독도레이스와 같은 달리기 행사 개최, 길거리 공연, 마라톤이나 월드컵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의 퍼포먼스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각 국가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세미나의 주요 골자는 저희 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 한국에 대한 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에 관한 이야기 3가지 주제로 나뉘어졌고 그 세부 내용은 각 나라별로 유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사이엔 외국인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직접 만든 독도와 한국 영상을 보여주었으며, 가장 열띤 호응을 받았던 사물놀이 태권도 판소리 공연이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팀에서의 제 역할이 세미나 구성과 발표였기 때문에 각 나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 조사와 독도에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루 쿠스코 사람들은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를 소중히 여기는데 몇몇 칠레 사람들이 그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상황에 빗대어 독도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나갔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와 같이 한류가 유행하는 곳에서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 OST를 노래 솜씨가 뛰어난 멤버가 부르기도 하였고, 케냐 나이로비의 초등학교에서는 그들의 동요를 연습하여 율동과 함께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남들 앞에 나가 발표하는데 익숙지 않았던 저는 행사를 할 때마다 낯선 '푸른빛, 갈색빛, 초록 빛깔의 낯선 눈빛들에 부끄러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웃는 얼굴에 침 뱉을쏘냐' 라는 무대뽀 마음가짐으로 최대한 환하게 웃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하기 위하여 평소 성격이면 절대 불가능했을 유머를 개발하는데 힘썼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저희의 이야기를 보다 잘 이해하고, 저희의 노력이 전해질 수 있도록 현지 언어로 마치 연극을 하듯이 달달 외워 발표했습니다. 이 덕분에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세미나 행사는 미국에서는 대학교, 중남미에서는 문화원과 극장과 한글학교, 유럽에서 길거리, 아프리카에서는 초등학교 등을 중심으로 일주일마다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명칭이 독도"레이서"인만큼, 직접 L.A의 한인타운,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거리에서는 5KM 건강 달리기 행사를 개최하여 '독도는 아름다운 한국의 섬입니다' 라는 문구가 각 국가의 언어로 쓰여진 티셔츠를 외국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함께 찍은 발 도장 깃발을 흔들며 달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달리는 외국인에서부터 우리의 지난 행사들을 보고 감동받아 멀리서 오신 분들까지 다들 한 마음으로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어보다 영어를 쓰는 게 익숙한 한인 2-3세 아이의 부모님께서 이 독도레이스에 참가한 후 아들이 독도 티셔츠를 하루 종일 입고, 독도와 한국에 대해 더 알고자 노력한다며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도 뿌듯했습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는 외국인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지만, 오히려 현지사회에서 "한국"을 대표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에게 홍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뉴욕마라톤과 체코마라톤에 참가해 가로세로 각각 2M 정도 되는 홍보 현수막을 매달고 완주해 인상이 남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여행 자금이 부족해지자 호주에서 3달 동안 머무르며 워킹 비자를 받아 각자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저는 일식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였습니다. 물론 일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도 정이 많이 들었고 저희 또한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멕시코 생방송 아침 뉴스에 출연하고,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특이한 분장과 악기 연주를 하는 등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흥미진진한 활동 이면에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원대했습니다. 행사도 많이 해야 하고, 홍보도 잘 해야 하고, 해외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어야 하고, 후원도 받아야 하는 등등 수많은 목표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저희는 돌진해 나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함께 활동을 하던 중 팀 막내였던 친구가 불의의 사고로 먼저 세상을 뜨면서 저희 팀 전체에 대한 믿음, 무엇보다 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고갈되어 갔습니다.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 "무엇보다 건강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9

박사학위자 취업현황

최근 5년간 경제학부 박사 취업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0년 2월 및 8월 졸업생 배출 및 취업 현황

성 명	지도교수	현직장
이준협	이 근	현대경제연구원
김부영	이 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문영	이 근	(주)한국기업평가
송민경	김영식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하 준	양동휴	산업연구원
권은지	양동휴	서울대 경제학부 BK21 포닥
곽정수	이 근	한겨레신문
박지희	김재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포닥
최미강	이상승	공정거래위원회

●2009년 2월 및 8월 졸업생 배출 및 취업 현황

성 명	지도교수	현직장
윤 용	류근관	출라롱코른대학 교수
김두한	양동휴	노동자정치경제연구소
박종훈	이 근	KBS(한국방송공사)
전은경	표학길	국회입법조사처
김윤지	이 근	수출입은행 경제연구소
김지연	이 근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윤민호	이 근	경북대 교수
류상운	이영훈	동경대학 경제학연구과 포닥
오영중	이 근	법무법인 우신 대표 변호사
김명록	양동휴	경성대학교 교수
김이경	이 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정선영	표학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8년 2월 및 8월 졸업생 배출 및 취업 현황

성 명	지도교수	현직장
전민규	이창용	한국투자증권
현영진	김수행	한신대학교 외래교수
강성윤	김수행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장시복	김수행	목포대학교 교수
엄부영	이 근	지식재산연구원
정무섭	이 근	삼성경제연구소
강영삼	이 근	WCU사업단(포닥)
곽 의	안동현	우리투자증권
김상수	안동현	예금보험공사
나원준	김영식	경북대학교 교수
김난주	이창용	한국개발연구원
심성희	이인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영준	이영훈	서울대학교 규장각
성숙경	전영섭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박강우	김대일	한국은행

●2007년 2월 및 8월 졸업생 배출 및 취업 현황

성 명	지도교수	현직장
추기능	이 근	해군사관학교 교수
손삼호	안동현	한국정책금융공사
홍성민	김대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곽주원	이인호	유학중(미국 로스쿨)

●2006년 2월 및 8월 졸업생 배출 및 취업 현황

성 명	지도교수	현직장
주 현	이승훈	산업연구원
김찬수	김수행	한국생산성본부
서봉교	이 근	동덕여대 교수
정헌일	이승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니마님수렝	이 근	몽고농업대학

이 최고다. 즐거우면 되었다"라는 진리를 잊고 앞만 보고 달렸던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멤버들 중에서 가장 빛났던 그 친구를 위해서, 또한 이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할 제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훈을 계기로 멤버들과 틈틈이 여정 중간 중간마다 저희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인지, 너무 조급하게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건강과 마음가짐이라는 두 가지 무기가 있으면 삶은 행복하다는 이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활동을 하면서 특히 가장 큰 감동과 에너지를 받았던 건 "사람"으로부터였습니다. 타향에서 열심히 살고 계신 한인 분들은 저희 행사를 보시고 나서 밥 한 끼라도 먹고 가라며 초대를 해주셔서 심지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밥을 잘 챙겨먹었습니다. 또한 처음 만난 저희들에게 따뜻한 눈빛과 응원을 보내준 세계 각지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나눈 정 덕분에 오히려 저희가 에너지를 받아 끝까지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의 활동으로 인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욕심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젊은이들은 도전적인 동시에 젊은이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며 동시에 그들과도 좋은 친구가 되는 따뜻한 사람들로 기억에 남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저희의 긴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밀린 공부를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배웠고 느꼈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의미 있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하나 둘씩 찾아가던 꿈같던 1년 그 속에서 더 강해진 제 자신이 있기에 든든합니다. 앞으로 함께 추억을 쌓았던 멤버들을 만나 함께 꾸었던 꿈같던 여정 속에 담겨있을 인생의 물음들을 이야기 하며 서로를 보며 깔깔거리기도, 훌쩍거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반짝였던 저희의 모습, 그리고 그들과 함께였던 빛나던 제 모습이 벌써부터 그립습니다. 다시 이 여행을 하라면 또 하겠냐고요? 절대 안할 겁니다. 그만큼 후회 없는 나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우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반짝이는 추억으로 평생 남을만한 일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알립니다 경제학부 소식지에 전하실 내용이 있으신 동문께서는 소식지 담당자에게 전해주시면 다음번 소식지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담당자 이메일 : snu97113@snu.ac.kr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으로 활동

우리 경제학부는 2006년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대비 고등인력양성사업(Brain Korea 21)의 인문사회분야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국제적 경제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사업단」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BK21 사업단은 2011년도 상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15회 ● Brown Bag Lunch 세미나 7회 ● 장단기연수지원 단기 16회

아래는 2011년도 상반기 BK21 사업단의 상반기 학술활동의 상세내역이다.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故김태성 교수를 기념하고 경제학부 BK21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Toshihiro Matsumura (University of Tokyo)
Steady R&D by Industry Leaders and Innovative R&D by Industry Followers

Federico A. Bugni (Duke University)
Distortions of Asymptotic Confidence Size in Locally Misspecified Moment Inequality Models

박인욱 (Bristol University)
Internal Hierarchy and Stable Coalition Structures

이지홍 (서울대학교)
Efficient Repeated Implementation

유규상 (건국대학교)
Semiparametric Regression: Efficiency Gains from Modeling the Nonparametric Part

Bettina Klaus (University of Lausanne)
Allocation via Deferred-Acceptance under Responsive Priorities

Johannes Horner (Yale University)
Career Patterns and Career Concerns

Samuel Bowle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The Sophisticated Planner's Dilemma: Mechanism Design with Endogenous Preferences

Steven Stillman (Motu Economic and Public Policy Research)
Natural Experiment Evidence on the Effect of Migration on Blood Pressure and Hypertension

Harry Paarsch (University of Melbourne)
Competition and Post-Transplant Outcomes in Cadaveric Liver Transplantation under the MELD Scoring System

박철범 (고려대학교)
Expected Returns, Expected Dividend Growth Rates, and the Price-dividend Ratio: Implications of Structural Breaks

Ichiro Iwasaki (Hitotsubashi University)
Double-Edged Sword: Government Directors and Business-State Relations in Russia

Kei-Mu Yi (Federal Reserve Bank of Minneapolis)
Structural Change in an Open Economy

Nicolas L JACQUET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The Liquidity Effects of Monetary Policy on Asset Prices

Albert Choi (University of Virginia Law School)
Should Consumers be Permitted to Waive Products Liability? Product Safety, Private Contracts, and Adverse Selection

Brown Bag Lunch 세미나

BK21 사업단에서는 간단한 점심식사와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참여대학원생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공간을 마련하기위해 'Brown Bag Lunch 세미나' 를 시행하고 있다.

임동민
화물자동차 운송업에서 유가보조금의 소득분배 효과

양정승
가구배경이 자녀의 수능성적에 미치는 효과 측정

기지훈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and Catch-Up by Latecomers in the World Steel Industry: Windows of Opportunity and the Industry Catch-Up Cycle

Donata Bessey
Preferences, Personality and Risky Behaviors: First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박봉석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ing and Income

정민현
Optimal Dependence on Durable Goods in a Stochastic Economy

조일현
The Channels of Effects of Inequality on Economic Growth

BK21사업단 장단기 연수지원

단기연수지원 (논문발표지원)

김정빈 (박사과정생) 미국/인디애나 블루밍턴
Is the Inequity Aversion Universal?

전영섭 (BK 참여교수) 미국/인디애나 블루밍턴
No-envy, Egalitarian Equivalence and Strategy Proofness in Queueing Problems

Donata Bessey (박사후과정생) 캐나다/오타와
Love Actually? Dissecting the Love-Marriage Relationship

전현규 (박사과정생) 캐나다/몬트리얼
Relationship among Farsighted Stable Sets and Myopically Stable Set in a Network Formation

김태훈 (박사과정생) 중국/항저우
Signaling Effect of Layoffs in Korea

강래윤 (박사과정생) 국내(부산)
Diverse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 Long term Evolution of Firm Values and Performance: Patent, Petty Patents, Trademark and Designs in Korea

기지훈 (박사과정생) 베트남/하노이
Toward a Theory of Catch-up Cycle and Industrial Leadership

박준기 (박사과정생) 베트남/하노이
What Determin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D: Different Inducement Effects of Private and Public & R&D in Developed and Developing Host Countries

사니카 술로차니 (박사과정생) 베트남/하노이
How to Explain the Growth Miracle & Slowdown of a Middle Income Country: Export Growth Matters More Than Institutions and Simple Openness in Mauritius & Bangladesh

김민정 (박사과정생) 독일/뮌스터
Corruption and Economic Growth

김동구 (박사과정생) 싱가포르/싱가포르
Korea's Green Growth Policy and Regional Economic Activity

이 공 (석사과정생) 싱가포르/싱가포르
Son Preference and Old Age Income Security: The Case of Korea

곽연준 (석사과정생) 싱가포르/싱가포르
The Determinants of Youth Unemploy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The Case of Korea

공 치 (박사과정생) 미국/Claremont
The Empirical Analysis on Cross Impact of Exchange Rate, Stock Index and Inflation Rate between China and Korea

이천국 (박사과정생) 미국/Claremont
Foreign Bank Entry and Bank Efficiency: Experience for Emerging Economies and Agenda for Further Research

박준기 (박사과정생) 미국/애틀랜타
What Determine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R&D in Developed vs. Developing Host Countries: A Country-Panel Analysis

서울대소식지25호-6 2011.9.7 3:42 PM 페이지11

서울대학교 최고 전략과정 안내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는 1961년도에 설립되어 60년에 이르는 전통과 역사를 지닌 연구소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및 경제 · 경영학 관련 전공 교수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금융위기를 보면서 경제연구소에서는 경제학부와 더불어 세계속에서의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1년 3월부터「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dvanced Strategy Program for Global Economy : ASP)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3월(22기) 입학생을 모집하는 본 과정은 이미 6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한 최고 수준의 교과과정과 강사진을 갖춘 산학협동과정으로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화된 디지털경제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지식 습득과 능력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사회 각계를 대표 하는 지도자들로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비롯, 국가전략을 결정하는 책임있는 당국자, 금융 및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최고 전략과정은 우리 나라 정부와 기업이 세계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세우는 데 주역을 맡으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ASP과정의 특전

1. **과정 수료자에 대한 이수증 수여** 6개월간에 걸친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총장 명의의 이수증을 수여합니다.
2. **동창회 조직** 본 과정 이수자들간의 상호교류와 학교와의 연계를 위하여 동창회를 구성하여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에 소속됩니다.
3. **정기간행물 및 시설 등의 이용** 수강자들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경제논집, Seoul Journal of Economics 등)과 자료들을 증정 받으며, 본 연구소의 각종 시설(도서실, 세미나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개인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4. **각종 세미나 및 행사 참여** 본 과정 수강자들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제연구소는 주례발표회(매주 수요일 12시), SJE 세미나 및 저명교수 초청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집안내

❶ **모집인원** 약 40 명
❷ **입학자격** 1) 국회의원급의 정치인 2) 3급 이상 공무원 3) 주요기관의 기관장급 간부 4) 금융기관의 임원 5) 기업의 임원 6)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
❸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❹ **모집횟수** 연 2회(봄학기 모집 : 1~2월, 가을학기 모집 : 7~8월)
❺ **이수요건** 강의 출석률이 70% 이상일 것
❻ **모집안내** TEL : (02) 880-5432 FAX : (02) 875-9867
E-mail : asp@snu.ac.kr Home Page : http://ier.snu.ac.kr/
주소 : 우)151-746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 (16동 523호)

커리큘럼

주제(과목)	이수기간	이수시간
금융 · 재정	3주 반	21시간
정보통신	1주 반	9시간
국제경제	3주	18시간
경제발전	3주 반	21시간
인문사회과학(교양)	4주 반	27시간
총 계	16주	96시간

※ 1일 3시간 강의, 총 32강좌
※ 매 기 수강생의 구성에 따라 주제별 시간 편성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SP 21기 수료자 명단

김석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김준연 한신정평가(주) 상무
문점수 군인공제회 상임감사
심재오 KB국민은행 본부장
이석호 삼성물산(주)건설부문 전무
정동식 대호 아이피 종합건설(주) 이사
조규환 한국수출입은행 원장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심의관
김영회 프라임그룹 재무관리실장 CFO
남명섭 금융감독원 실장
박명율 국회 보좌관
여인모 삼성증권 지점장
인채권 삼성자산운용 상무
정성근 이트레이드증권 상무
조희철 중소기업은행 부장
황병홍 신용보증기금 부장
김정오 두산 지주부문 상무
노경학 (주)한록에프앤디 대표이사
박상문 로쎈법무사무소 대표
이상경 삼성화재 상무
임영빈 삼성생명보험(주) 전무
정한욱 KT 중앙연구소장
최강수 한국기업평가(주) 본부장

발전기금 모금 안내

그동안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기금은 경제학부의 발전을 위하여 유익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제학부의 전통을 이어 받아 앞으로 위상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제학과 경제학부를 둘러싼 주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 중심 교육과 함께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응용경제학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설과 지원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선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수요에 대처하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용에 더욱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제학부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동문 여러분의 애정과 정성어린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 발전기금에 출연을 희망하시는 동문께서는 다음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을 하신 뒤 하단의 연락처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제상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계좌번호 : 079-12-016051 (농협, 서울대지점)**
▶ **예금주 : 사회대 경제학부**

기타 발전기금 관련 문의사항 및 관련내용은 경제학부 사무실의 발전기금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전기금 담당자 연락처** 전화 : 02-880-6361
E- mail : kang97@snu.ac.kr

학생수상 및 장학금

장학금 수여

2011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1067명 중 165명(전액 장학금 16명), 대학원생 43명이 수혜를 받았다. 또한 향상장학금을 통해 20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으며,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았다.

상대동창회 졸업생 포상 및 장학금 전달

강효석 학생과 김강한 학생이 성적최우수자로 선정되어 상대동창회로부터 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임수현 학생 외 19명이 상대동창회로부터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2011학년도 향상장학금 수여식

2011년 2월 28일 경제학부 9명의 교수가 호암교수회관에서 20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향상장학금을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교무 및 학생활동

2011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2011년도 전기 졸업식이 2월 25일(금) 14시에 종합체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서 경제학부는 정상준 외 7명의 박사를, 전현규 외 23명의 석사를, 조성준 외 150명의 학사(최우등 26명, 우등 66명)를 배출하였다.

2011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1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석사과정은 전공필답고사 성적으로 1차 선발하여 면접 및 구술고사를 거쳐 최종 17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의 연구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통해 총 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경제학부 선배와의 진로상담 간담회 개최

경제학부는 3월 25일에 우리 학부 출신 선배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의 진로상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정수(96학번; 김&장 변호사), 곽상현(96학번; 행시14회, 기획재정부 사무관), 남우도(95학번; 도이치은행), 김동우(03학번; 한국은행), 정상안(03학번;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 5명의 선배들은 후배들의 진로상담을 해주었다.

201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본교는 2011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업을 2011년 6월 23일 ~ 2011년 8월 3일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정치경제학입문', '경제수학' 및 '주식,채권,파생금융상품'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조교 인사이동

심경보, 위윤진 조교가 퇴임하여 이병욱 조교가 신규임용 되었고 2명(민희연, 강수영)의 조교가 보직변경을 하였다. 이병욱 조교는 입시업무, 민희연 조교는 졸업업무, 강수영 조교는 교무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경제학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실시

경제학부는 2011년 전공진입생을 대상으로 학부안내 오리엔테이션을 2월 21일에 개최하였다. 학부장 및 부학부장을 비롯한 경제학부 교수들이 참석하여 전공진입생들을 환영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준구, 류근관 교수는 교수들을 대표하여 환영인사와 함께 학생들이 앞으로 학교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알찬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해 주었다. 행사 후 교수들과 학생들은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간담회를 가졌다.

스승의 날 행사 개최

경제학부는 5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스승의 날 주간으로 잡고 스승의 날 행사 'Meet your professors'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부는 약 1000여명의 학생과 36명의 교수로 구성되어 있어 평소 자유로운 사제간의 교류가 힘들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 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서 학생들은 담당교수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희망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11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박지형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
류근관	Studies in Advanced Econometrics Introductory Statistics for Economists
Jihong Lee	Studies in Microeconomics
이근	Studies in Technology and Development Economics
김봉근	Topics in Applied Microeconomics
Elias Sanidas	Studies in Economics of Organization and Technology International Economics
Chenggang Xu	Topic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Economic Systems
윤택 이지순	Money and Finance Theory of Economic Growth

2011학년도 외국인특별전형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11년도 후기 외국인특별전형을 실시하여 서류평가를 통해 5명의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이번 외국인특별전형은 총 16명의 외국인 학생이 지원한 가운데 2명의 중국인 학생, 2명의 미국인 학생과 1명의 터키인 학생이 선발되었다.

버클리大 경제학과 방문수학 프로그램 (BESAP) 학생선발

경제학부는 2011년 3월말 선발전형을 실시하여 8명의 학생을 BESAP 학생으로 선발하였다. BESAP은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버클리大(UC Berkeley)와 협약을 통해 학부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버클리大 경제학과의 봄학기 정규과정에 방문 수학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1년 프로그램과 가을학기 프로그램은 2011년 올해 처음 시행하였다.

경제학부 홈페이지 개편

경제학부 홈페이지가 2011년 9월14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갑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에서는 지금까지 누적되어온 사용자의 불편성과 보안상의 취약점을 적극 개선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면서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유학생 게시판, 로스쿨 게시판, 교환방문학생 게시판 등 현 시대의 흐름과 부합하는 다양한 게시판을 만들어 경제학부 구성원 간의 원활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스마트폰에서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상세한 관련 내용은 추후 경제학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